ハングル語

2011 년 교오또교구 평화주간 메세지

평화를 위해서, 원자력이용을 묻다

교오또교구 주교 바오로오오츠카 요시나오

금년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3.11 동일본대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드리도록 합시다. 전례가 없는 대재해로 인해 많은 존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집도 가족도 생화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들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베네딕도 16 세 교황님의 2010 년 평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구축과 환경보전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배울 수 있었듯이, 「후쿠시마 제 1 원전사고」를 통해서 한층 더 이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지진과 쯔나미는 자연재해이지만, 원자력에 의한 사고는 인간에 의한 재해입니다. 과학기술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창조성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원자력의 개발이 만들어 낸 제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과 환경에게 위협을 주는 원자력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의 손에 허락된 과학기술인가 아닌가를 식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일본이, 지금, 원자력개발에 의한 피해국이 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핵무기폐기와 전쟁이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평화운동도, 그 원점으로 돌아가「누구든지 인간답게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소비·생산의 모델은 경제적·환경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많은 경우,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사회는 군비철폐를 추구하고,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해서도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여, 환경에 해롭지 않은 에너지의 연구와 활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절전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번 여름이지만, 우리들도 다시금 안심과 안전을 위해서 검소한 생활양식을 선택하여, 그러한 희생도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일본, 아니, 인류전체가 평화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 연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평화의 기도 <성 프란치스코 >

주여 !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